

“국립공원내 사찰림 사찰이 관리해야”

김재일 대표 ‘인위적 관리’ 필요 강조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사찰림이라도 인근 숲은 해당 사찰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는 6월 15일 원주 구룡사에서 열린 ‘차악산 금강송 보호 육림 관리설명회’에서 “사찰 소유 임야는 사찰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룡사주지 원행가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주시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지역 환경단체



구룡사에서 열린 차악산 금강송 관리 설명회. 오른쪽부터 원주시청 김계성 산림과장, 김재일 대표, 구룡사 주지 원행, 정주사 주지 법혜 스님. (사진=유철주 기자)

순국선열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각 종단 · 지역 사찰들 호국보훈의 달 맞아 천도재 봉행



6월 12일 양구 호국도술사에서 봉행된 위령제. (사진=유철주 기자)

조계종, 전쟁기념관서 천도재
6월 12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는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상태) 주관으로 단군 개국 이래 순직 사망한 호국영령들을 진혼하는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02년 서해교전으로 사망한故 윤화영 소령 등 전몰장병 6명의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영가법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가가 있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

관육(灌浴)에 이어 진행된 위령제에서



관육(灌浴)에 이어 진행된 위령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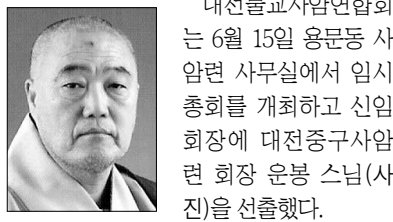
21사단을 대표해 김봉기 대령은 “양구지구는 ‘피의 능선’으로 불릴 만큼 치열했던 격전지였다”며 “불자들과 함께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무암사 주지 황도 스님은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던진 선열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장병들이 사고 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더 마음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이곳 양구지역에서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바쳐 조국선하를 지키려다 유명을 달리한 호국영령들을 위해 천도의 법연을 마련하였사오니 제불보살의 크신 원력으로 삼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했다. (유철주 기자)

광주 혜룡사, 불자장병 200여명 동참
광주 혜룡사(주지 혜우)는 6월 6일 담양 공수여단 군법당에서 ‘호국영령 천도 위령제’를 봉행했다. 현충일을 맞아 열린 이번 천도재에는 부대장 박대섭 준장을 비롯한 군관계자와 불자장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룡사법원구원 소속 스님들은 전통 불교의식으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대전사암련 회장에 운봉 스님



대전불교사암련연합회는 6월 15일 용문동 사암련 사무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대전중구사암련 회장 운봉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前 회장 만다 스님(통도사 대전포교원)의 지병으로 사실상 회장이 공석 상태였던 대전사암련은 이날 새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운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 대전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 1년 6개월이다. (조용수 기자)

광주 파라마이더, 음악놀이 경연

파라마이더청소년협회 광주지부(지부장 광민)는 6월 11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3회 광주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무각사 경내 특심무대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광주지역 30여개 중, 고교에서 43개팀이 참가해 송연어고, N.I.X를 비롯 8개 팀이 입상했다. 대회에 앞서 광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면에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휘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준엽 기자)

월정사, 일반인 대상 여름수련회

평창 월정사(주지 정남)가 일반인 대상 여름수련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7월 12~15일(1차), 7월 19~22일(2차), 8월 18~22일(3차, 선수련회)로 나누어 진행되는 일반인 대상 여름수련회는 80명(3차는 수련회 및 참선 경험자 우선 선발)씩 모집한다. 여름수련회에서는 매일 오전 3시 50분에 일어나 예불, 108배, 참선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 특강, 참선, 요가 등으로 보다 심화시킨다. 수련회는 4일째의 108배와 마지막 날의 삼보일배로 회향을 하게 된다. 월정사는 7월 4일까지 여름수련회 접수를 마감하며 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광주 생명나눔 ‘휠체어’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정)는 6월 14일 화순 전남대병원(원장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2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휠체어를 각각 전달했다. 이날 김명실 생명나눔실천 사무총장은 결핵성 관절염과 항암치료로 거동이 어려운 환우에게 직접 휠체어를 전달하고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 쾌유를 기원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며 격려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2000년부터 ‘살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환우들의 투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진해 천웅사

찬불가 가락타고 신심도 UP



천웅사 주지 성우 스님의 반주에 맞춰 신도들이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6월 12일 일요일, 진해의 시골 마을인 웅천에 위치한 천웅사(주지 성우)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스님이 연주하는 전자오르간 반주에 맞춰 신도들은 목청껏 찬불가를 부르며 찬불가가 가사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요 찬불가법회가 그것이다. 이날 처음 법회에 참석한 이규중(61)씨는 “처음 오면 낯설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동안 찬불가를 부르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다”고 말했다. 노래를 하는 박필선(78)보살, 양덕열(77)보살의 얼굴엔 소년 이 늘어났다. 음악을 통한 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던 성우 스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올해 초파일을 기해서 그동안 일요 찬불가법회에서 불러왔던 찬불가 가사와 함께 ‘리듬 찬불가’ CD와 테이프를 제작하기도 했다. 디스코풍의 천수경, 트로트풍의 반야심경과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등이 일요 찬불가법회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CD나 테이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성우 스님이 용기를 낸 것이다. (김·사진=천미희 기자)

‘리듬 찬불가’로 흥겨운 법회 ‘인기만점’ 디스코풍 천수경 등 테이프 제작 보급에 주력

같은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마산에서 온 김재환(47)·박은미(44) 부부는 “찬불가로 법회를 어니까 자꾸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리듬 찬불가 예찬론을 폈다. 젊은 시절 밴드 활동을 했던 성우 스님이 음악을 통한 포교 방안을 고민한 끝에 10여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찬불가법회를 시도해오다 6년 전부터는 제법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찬불가가 좋아서 천웅사를 찾는 신도들도 제법 늘었고 찬불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신도들도 많다. 8년 전 단 2명으로 일요법회를 시작한 후 고전을 면치 못하다 찬불가법회를 시도하면서 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신도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대중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병의원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려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병의원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들어드려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은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제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지는 못하리요 둘째 무엇에 써워서 제 갈길을 못하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병의원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종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졸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일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무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대중선사 김영생 올림